

2014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정답

| | | | | | | | | | |
|----|---|----|---|----|---|----|---|----|---|
| 1 | ⑤ | 2 | ③ | 3 | ④ | 4 | ② | 5 | ② |
| 6 | ④ | 7 | ⑤ | 8 | ⑤ | 9 | ⑤ | 10 | ② |
| 11 | ③ | 12 | ② | 13 | ① | 14 | ① | 15 | ⑤ |
| 16 | ① | 17 | ③ | 18 | ③ | 19 | ④ | 20 | ④ |
| 21 | ③ | 22 | ⑤ | 23 | ① | 24 | ① | 25 | ⑤ |
| 26 | ④ | 27 | ③ | 28 | ③ | 29 | ⑤ | 30 | ④ |
| 31 | ② | 32 | ② | 33 | ① | 34 | ④ | 35 | ④ |
| 36 | ③ | 37 | ④ | 38 | ④ | 39 | ② | 40 | ③ |
| 41 | ② | 42 | ② | 43 | ⑤ | 44 | ① | 45 | ① |

해설

1. [출제의도] 발표를 듣고 발표 계획을 파악한다.

발표는 공식적인 말하기의 하나이다. 따라서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발표 상황과 맥락, 청중, 매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발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질문을 통해 청중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반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책의 내용이나 속담, 명언 등을 인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 발표를 하는 학생은 유명한 사람의 명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발표 의도를 부각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발표 중간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②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에 대한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발표를 하고 있다. ③ '훈민정음 원본'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④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간송미술관에 방문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특별해설]

▶ 중학교 학습 요소

중학교 화법 교과에서는 개인적, 공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듣기·말하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말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초점을 둔다. 평가는 다양한 말하기의 목적과 유형, 말하기의 상황 맥락과 내용 구성, 표현과 전달, 추론과 평가, 상호 작용과 관계 형성, 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등에 대한 기능을 확인하는 문제로 이루어진다. 또 말하기의 가치와 중요성, 동기와 흥미, 공감과 배려, 윤리 등의 태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

▶ 고등학교 평가 문제의 특징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운 말하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심화된 요소를 주로 평가한다.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발표 계획과 전략, 발표를 효과적으로 듣는 태도와 방법, 일상 담화 상황에서 조언하거나 위로나 격려하는 말하기의 실제, 공감하는 말하기의 실제, 성공적인 면담을 위한 계획과 방법, 협상의 목적과 방법, 협상의 바람직한 태도 등의 지식을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서 확인하고 적용,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를 주로 출제한다.

▶ 학습 전략

수업 시간 중 발표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 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말하기의 원리, 기능, 태도에 대해서 담화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적용하며 추론해 보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의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발표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마

련하고 구성하며, 실제 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한다. 말하기의 과정이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하기의 계획, 과정과 방식, 말하기의 상황에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생활의 담화 상황에서 찾고 스스로 이해하고 적용, 추론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담화 상황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발표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발표 내용을 듣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발표에서 간송 전형필은 일제 강점기에 문화재를 수집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문화재를 수집하게 된 계기는 발표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고려청자, 조선백자, 추사 김정희의 작품,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 훈민정음 원본 등 간송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들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② 간송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들은 현대에 와서 우리 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간송 전형필이 문화재의 가격을 정할 때, 파는 사람이 요구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 문화재가 지닌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여 값을 치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간송 전형필이 문화재를 수집하던 초기, 많은 돈을 들여서 낡은 그림이나 그릇, 책 등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3. [출제의도] 대화 상황에 따른 말하기를 이해한다.

빨간색보다는 검은색이 낫다는 서우의 말은 자신의 생각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서우는 빨간색 원피스가 마음에 들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므로, ㉠은 친구들의 판단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민서는 빨간색 옷을 입은 은채를 보며 당황하지만, 빨간색도 괜찮지만 검은색은 어떠냐며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 ③ 은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검은색 옷도 입어 보라는 민서의 권유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민서는 피부색과의 어울림, 소재, 박음질 상태 등의 이유를 들며 검은색 원피스가 더 낫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출제의도] 협상을 위한 말하기 전략을 이해한다.

은채는 옷가게 주인에게 옷값을 싸게 해 주면, 동생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동생이 옷을 살 수 있다는 미래의 이득을 제시하며 주인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은채는 가게 주인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 ③ "어떡하죠?"라는 말은, 옷가게 주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면담에서 말하는 방식을 이해한다.

영서는 의료 봉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형주와 면담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면담의 목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알고 싶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녹음기 사용에 대해 면담 대상자의 허락을 구하고 있다. ③ 한의대생들이 의료 봉사를 할 때 하루에 수백 명까지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은 영서의 배경 지식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역할을 분담해서 일한다는 형주의 답변을 듣고, 역할 분담의 방법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쓴다.

㉠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는 '최형주 씨는'이다. 만약 ㉠을 '매력이다'라고 고친다면, '최형주 씨는 ~매력이다'가 되어 문장의 뜻이 어색해진다. 이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본문 그대로 '매력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많은 환자들을 돌보게 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므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인과 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는 '그래서'라는 접속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둘째 단락의 첫째 줄에 나오는 '이 활동'은 의료 봉사 활동을 가리키므로 의료 봉사의 개념에 해당하는 ㉣를 두 번째 단락의 시작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7. [출제의도] 적절한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

'작문 상황'이란 집필 동기가 무엇이고, 독자가 누구이며, 어떤 형식의 글을 쓸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특히 글의 형식은 내용 구성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문제에서 제시한 글의 형식은 편지글이다. 그에 따라 편지의 맨 처음에 '받는 사람'을 부르고, 마지막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편지를 보냈음을 씀으로써 마무리를 한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의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편지의 앞부분에는 보통 받는 사람의 안부와 자신의 근황을 밝힌다. 이 문제에서는 '자신의 근황'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으로 적절하다. 한편 ㉢의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일', ㉣의 '고민할 때 조언해 주셨던 일에 대한 감사' 등은 각각 '선생님의 추억'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구체적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글쓰기 계획이다. 그런데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경의'를 표시한 것이지, '선생님의 건강 기원'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글쓰기 계획은 ㉤이다.

8.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계획한다.

(가)의 자료는 치아의 건강 유지가 중요함에 대한 정보를, (다)의 자료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올바른 칫솔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치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해설]

▶ 중학교 학습 요소

중학교에서는 쓰기 단원에서 목적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는지를 통한 추론적 사고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즉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는 내용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는 것이다.

▶ 고등학교 평가 문제의 특징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의 학습 내용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으로 작문 교과를 가르친다. 그리고 평가에서는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자료나 사실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선정하거나 생성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특히 수능에서는 '다음 자료를 읽고 글의 내용을 구상해 보았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과 같은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 학습 전략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쓰고자 하는 글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글의 목적이나 주제가 제시된 자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며 적절하게 내용을 생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상생활이나 학습 과정에서 접하는 자료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의미를 추론하거나 생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한다.

⑤는 치아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칫솔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칫솔질'을 '치아 건강의 버팀목'에 은유하고 있으며, '떨어지고'와 '가까워집니다.'라는 대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칫솔질'은 '공기 청정기'라는 은유를 사용했으나, 대조가 사용되지 않았고 규칙적인 칫솔질의 필요성이 담겨 있지 않다. ②, ③ 규칙적인 칫솔질의 필요성은 드러나지만 은유와 대조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규칙적인 칫솔질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건강하게'와 '상하게'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은유가 사용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개요를 올바르게 수정한다.

개요를 작성하고 수정할 때는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을 빼거나 이동시키고 바꿔야 한다. 또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을 해야 한다. 내용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는 주어진 내용을 추상화하는 것, 즉 하위 항목을 포괄하는 것이다. ㉠은 바로 추상화된 내용이 하위 항목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 사례이다. 이를 수정하려면 [중간]-1과 [중간]-2를 포괄해야 한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목차'는 『삼국유사』의 내용'과 『삼국유사』의 의의'를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수정하려면 『삼국유사』의 내용과 의의'로 해야 한다.

[오답풀이] ㉠은 책을 소개하고 그것의 가치를 밝히며 사람들에게 권하는 '서평'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목이다. '선조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라는 말 속에는 책의 내용과 가치 등이 담겨 있다. ㉡의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삼국유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의 의의'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과 같은 '책을 발견한 계기'는 의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도 없다. 그러므로 ㉢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에서 말하는 '책을 읽은 소감'은 서평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선생님의 조언에서도 언급된 것이므로 ㉤와 같이 개요를 수정하는 것은 옳다.

11. [출제의도] 지시어의 기능을 이해한다.

담화 상황에서 지시어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담화 상황에서 지시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은 말하는 이인 '지수'와 듣는 이인 '성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듣는 이인 '지수'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어로, '지수가 끼고 있는 장갑'을 가리키고 있다. ② ㉡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가까운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성모'와 '지수'가 대화를 나누는 장소를 가리킨다. ④ ㉣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대화의 장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인 '편의점'을 가리킨다. ⑤ ㉤은 '지수'의 언니가 장갑을 산 '가게'를 가리키는 말이다.

12. [출제의도] 단어의 형성법을 이해한다.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어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물고기'는 '물(어근)+고기

(어근)'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책가방'은 '책(어근) + 가방(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반면, '지우개'는 '지우(어근) + 개(접사)'로 구성된 파생어이며, '심술쟁이'는 '심술(어근) + 쟁이(접사)'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13.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을 이해한다.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서로 비슷한 소리로 변하는 음운의 동화 중, 비음화에 대해 확인하는 문제이다. '국물'은 [궁물]로 소리가 나는데, 그 이유는 받침 'ㄱ'이 비음인 'ㄴ'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자리에서 소리가 나는 비음인 'ㅇ'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물'은 비음화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③ 음운의 동화가 일어나지 않고 '[받달]'으로 소리가 난다. ⑤ [가을거지]로 소리가 나는데, 'ㅣ'모음 앞의 'ㄷ, ㅌ'이 구개음인 'ㄷ, ㅌ'으로 소리가 나는 구개음화 현상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피동 표현을 이해한다.

①은 주어(이 문장에서는 생략되어 있음) 다른 주체(동생)에 의해 빼앗기는 동작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동 표현이 활용된 문장이다.

[오답풀이] ②와 ③은 능동 표현이다. ④ '숙이다'는 '앞이나 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굽히다' '굽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를 이해한다.

ㄱ의 '먹었다'는 주어 '회선이는'과 목적어 '빵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며, ㄴ의 '피었다'는 주어 '장미꽃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풀이] ① '회선이는'은 주어로서, '먹었다'의 필수 성분으므로 생략하면 안 된다. ② ㄴ의 '빨간'은 '장미꽃'을 꾸며주는 관형어이므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장미꽃이'는 주어이므로 문장 성립에 필요하다. ③ '먹었다'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피었다'는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맛있는'은 관형어, '활짝'은 부사어로서 둘 다 뒤의 말을 꾸며주는 수식어이므로, 생략해도 문장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별해설]

▶ 중학교 학습 요소

중학교에서는 '문장의 짜임새'를 다루는 단원에서, 학생들이 서술어와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자릿수의 기능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고등학교 평가 문제의 특징

중학교에서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문항이 빈번히 출제된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문법적 지식을 주어진 문장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 학습 전략

본 문제의 경우 <보기 1>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 준 후, <보기 2>에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두 문장을 제시하고, 이를 탐구하게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문법을 공부할 때 지식을 단순하게 암기하려 하지 말고, 교과서에 제시된 언어 자료를 통해 문법 지식이 도출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6~18] (현대시) (가)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나) 정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가) 신석정, 「들길에 서서」

시적 화자의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 푸른 별이 있다. 그리고 두 발로는 굳건히 지구를 딛고 있다. 그러므

로 '뼈에 저리도록' 현실 세계는 괴롭지만 시적 화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저문 들길'로 상징되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시대적 분위기에서 발표된 이 작품에는 미래에 다가올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현실 극복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나) 정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 작품의 화자는 '공'처럼 살자고 말한다. 공은 떨어져도 튀어 오르고 쓰러지는 법이 없으며,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최선의 꼴을 하고 있다. 계속 튀어 오르는 공처럼 좌절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 삶을 살겠다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16.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와 (나) 모두 직유법을 통해 시적 대상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가)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산림처럼', '푸른 산처럼'을 통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지구를 든든하게 디디고 사는 것을 숭고하고 기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는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 왕처럼', '지금의 네 모습처럼'을 통해 자신이 닮고자 하는 삶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역설적 표현은 (가)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가)는 '푸른'이라는 색채어만 사용하고 있고, (나)는 색채어를 찾아볼 수 없다. ⑤ (가), (나) 모두 첫 연과 끝 연의 구조를 통일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7.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감상한다.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자연과 마주하며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 즉 당대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자연물 속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으로 도피함으로써 시대적 고통을 잊고자 한다는 의미를 이끌어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푸른 하늘'이 언제나 '머리 위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자연과 마주하며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②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과의 교감을 꾀하는 행위이며, 작품에서는 이를 '숭고한 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산림이라는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산림처럼'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④ '저문 들길'은 '푸른 별'과 대비되어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시대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시어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푸른 별'은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과 연관된 것이다. '별을 바라보는' 행위는 자연물에 대한 동경이므로, 이를 통해 이상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18. [출제의도]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다.

<보기>에 따르면 '구(球)', 즉 원은 보통 완전함이나 최선의 모양을 의미한다. (나)의 화자는 '공이 되어' 살아 보자고 노래하며 이를 '최선의 꼴'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연결하면 '공'은 '화자가 닮고자 하는 최선의 존재'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에서 '지구'는 '부절히 움직'이는 존재로, (나)에서 '공'은 '떨어져도 튀는 공',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로 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와 '공' 모두 운동성을 가진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가)에서 '지구'는 화자가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지만, (가)의 화자가 그 모습에서 원만함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공'은 작품에서 본모습을 쉽게 회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특별해설]

▶ **중학교 학습 요소**

중학교에서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바 있다.

▶ **고등학교 평가 문제의 특징**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학습 요소를 더 심화하여 시어의 상징적 의미,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 특정한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 이해 등을 <보기>로 제시한 후, 이를 작품에 적용하여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

▶ **학습 전략**

작품을 심도 있게 분석한 내용이 <보기>로 제시되므로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보기>를 근거로 작품에 접근할 것을 요구하므로 오히려 <보기>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작품을 감상한 근거가 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막연한 감상보다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감상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작품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꾸준히 접하는 것이 좋다.

[19~21] (고전 시가) (가) 작자 미상, 「가시리」 / (나)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가) 작자 미상, 「가시리」

사랑하는 입을 떠나보내는 여인의 애절한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입을 붙잡고 싶지만 떠나보내야만 하는 여인이 느끼고 있는 한(恨)의 정서가 간결하고 소박한 시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나)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아직 오지 않은 입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입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입을 원망하는 심정이 열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9.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가시리잇고(가시렵니까)'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원망에 찬 하소연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어이 못 오던가'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입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은 ④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열거법은 여러 대상을 나열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가)에서는 열거법을 확인할 수 없고, (나)에서는 등장에서 입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감정 이입은 특정 대상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불어넣어 자기와 대상이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심리를 말한다. (가)와 (나) 모두 감정 이입을 사용하여 심리를 표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감탄사는 '감동·응답·부름·놀람' 따위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가)와 (나) 모두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⑤ 배경을 묘사한 후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을 '선경 후정'이라고 한다. (가)와 (나) 모두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20.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한다.

(가)의 화자는 이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며 입을 떠나보내고 있다. 그리고 입이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입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자신을 찾아 와 볼 하루가 없느냐고 입을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가 동일인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화자는 입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화자가 이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거나 입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떠나려는 입을 원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 또한 '한 달 서른 날에 날 와 볼 하루 없으랴'라는 표현에서 입을 원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에게서 입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③ (나)의 화자는 돌아오지 않는 입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 입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과거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는 어쩔 수 없이 입과 이별을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입을 원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이별 당시의 괴로움을 극복하거나 차분한 마음으로 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1. [출제의도] 문학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이해한다.

'날리는 어찌 살라 하고'에는 이별의 상황에서 오는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 이는 입이 떠난다면 나는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할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하소연이 고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시리/가시리/잇고'는 3글자, 3글자, 2글자로 된 3:3:2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고, 시가를 읊을 때 한 호흡 단위로 느껴지는 운율 단위인 음보가 3음보로 되어 있다. ② '위 증증가 대평성대'는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후렴구로 작품의 음악적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④ '선하면 아니 올세라'는 입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입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별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실은 님 보내옵나니'는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입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자신에게 부탁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2~24] (고전 소설) 작자 미상, 「홍부전」

「홍부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 12마당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홍부전」은 선인과 악인이 대립하여 인물의 행위를 반복하는 모방담 구조라고 알려져 있다. 이 모방담 구조란 선한 인물이 우연한 기회에 선행으로 행운의 결과를 얻고, 악한 인물이 선한 인물의 행위를 흉내내다가 악운의 결과를 얻는다는 민담 구조이다.

22. [출제의도] 소설의 서사 구조를 이해한다.

모방담 형식의 서사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비와 관련된 사건에서 보이는 홍부와 놀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비 황제는 홍부의 행동을 듣고는 박씨를 주어 은공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으며, 놀부의 행동을 듣고는 제비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비 황제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 아니라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비가 오는 사건은 홍부와 놀부의 모방담의 시작으로 사건 전개의 발단에 해당한다. ② 구렁이가 제비를 잡아먹고 다치게 하므로, 홍부는 구렁이가 제비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놀부는 구렁이가 와야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구렁이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원인은 예상치 못한 구렁이의 행위로 인한 것

인 반면에, 놀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④ 홍부는 다친 제비가 불쌍하다는 마음에서 제비의 다리를 치료하고 있으며, 놀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소설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고전 소설에 자주 사용되는 특징적 표현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해학적 표현이란 말과 행동 등을 과장하거나 희화화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을 말한다. 그런데 ㉠은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톡', '발발'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③ '꿇기를 부자 밥 먹듯'한다는 말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제비의 팔자가 사납다고 한 것은 제비가 불쌍하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땃줄 감듯', '연줄 감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며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표현의 기능을 이해한다.

고전 소설의 표현 및 서술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는 제비가 홍부의 집에서 겪은 사건을 대신하는 말이며, ㉢는 제비가 놀부의 집에서 겪은 사건을 대신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차여차'는 이미 전개된 사건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것을 피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고전 소설에서 장면 전환을 위해서는 '각설', '~거동 보소' 등의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③ 구어적 표현이나 현재형 표현의 기능에 해당한다.

[25~27] (극) 오영진 원작, 박만규 극본, 「시집가는 날」

「시집가는 날」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탐욕적인 맹진사가 가문의 영달과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해 딸 갑분이를 도라지골 김판서 택 아들 미연에게 시집보내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학과 풍자로 표현한 작품이다. 미연은 자신이 불구라는 소문을 거짓으로 맹진사에게 흘려 보내게 되고, 맹진사는 그 소문을 믿고 자신의 딸 갑분이 대신에 갑분이의 몸종인 이뿐이를 갑분이로 위장하여 김판서 택과의 혼인을 유지하려 한다. 자신이 계획적으로 퍼뜨린 헛소문에 맹진사와 맹진사의 딸 갑분이가 취한 행동에서 거짓과 위선을 확인한 미연은 착한 심성을 가진 이뿐이를 신부로 맞이함으로써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서사 구조를 이해한다.

작품의 8장에서는 이뿐이에게 갑분이 대신 미연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맹진사 부부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하는 이뿐이의 갈등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뿐이의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뿐이는 자신의 천한 신분을 감추며 미연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뿐이는 미연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10장에서는 혼례 후 미연이 그동안 감추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듣고서야 이뿐이는 그 동안의 일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뿐이가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는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극적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작품에 상징성을 띤 사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10장에서 미연이 과거의 일을 언급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지 않다. ③ 등장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극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설자가 등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8장에서의 장면과 10장에서의 장면이 각각 하나씩 제시될 뿐 장면의 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6.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다.

'한씨'는 남편인 맹진사의 뜻에 동조하여 이뿐이가 갑분이 대신 미언에게 시집갈 것을 요구하는 인물이므로, '한씨'가 이뿐이와 미언의 혼인을 반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위가 불구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김판서 덕과의 혼사를 성사시키려는 이유는 사돈이 될 김판서 덕의 권세에 기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맹진사는 권세에 대한 허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미언은 헛소문을 퍼뜨려 맹진사와 맹진사의 딸을 시험하게 되는데, 이에 순수하고 진실한 내면을 지닌 인간을 만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10장에서 형식이 아닌 사랑을 중시하는 미언의 태도를 찾을 수 있다. ⑤ 혼인하기로 된 미언의 얼굴을 신부 측에서는 한 번도 보지 않았으므로 구습 결혼제도의 모습에 해당한다.

27. [출제의도] 뮤지컬 극의 특징을 이해한다.

노래를 통해 이뿐이가 맹진사의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박한 마음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뿐이와 맹진사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달님 별님 말해줘요'라고 노래를 시작하여 달님과 별님을 가상의 청자로 설정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관객은 이뿐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뿐이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다. ④ 뮤지컬에서 노래는 대사로 표현하기 힘든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A]의 경우 대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이뿐이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⑤ 미언이 불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몸종이기 때문에 귀한 신분을 가진 미언을 속이며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뿐이가 착한 심성을 가진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8~30] (현대 소설) 채만식, 「논 이야기」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과도기적 사회상을 풍자한 농촌 소설이다. 작가는 술과 노름으로 인한 빚으로 인해 일본인 지주에게 팔아버린 땅을 해방이 되면 찾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다니는 한덕문의 행태를 풍자하고 있지만, 아울러 한덕문의 입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땅을 갖고 싶다는 농민의 소망을 외면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 시점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 그리고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덕문은 독립이 되었지만 개인적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길 잘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덕문은 독립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한덕문은 길천에게 눈을 팔았으므로 강제로 빼앗겼다고 할 수 없다. ② 구장은 길천에게 판 한덕문의 땅이 해방 후에는 당연히 국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한덕문의 친구는 덕문이 땅을 판 것을 책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한덕문은 자신이 판 땅을 돈을 내고 사라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한다.

한덕문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해방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되찾을 것이라는 장담을 한다며 한덕문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비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33] (인문)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외, 「생각의 탄생」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문의 내용은 그 중에 하나인 '유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문에는 먼저 유추를 정의함으로써 개념을 밝히고 있다.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은 유추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그것을 '어린아이의 유추 과정'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넷째 단락에서는 유추를 통해 얻어진 결론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말하고 있고, 다섯째 단락에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를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31. [출제의도] 글의 집필 의도를 파악한다.

지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둘째, 셋째 단락에서는 유추의 일반적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유추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관한 내용인 것이다. 그런 다음에 '유추의 한계와 극복 방법', '유추의 필요성' 등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 그 유용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유추의 활용 사례'는 언급되어 있으나, '유추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은 옳지 않고, ③은 지문에 전혀 언급된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의 '유추의 문제점 지적', ⑤의 '유추의 본질' 등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새로운 사고 방법의 필요성'이나 '유추와 여타 사고 방법들과의 차이점'은 지문과는 관련이 없다.

32. [출제의도]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한다.

'범위 좁히기'는 알고자 하는 대상과 공통점이 많은 비교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주어진 문제는 그것을 시작 자료, 즉 벤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 보라는 것이다. <보기>를 보면 (A)는 [가]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고, (C)는 [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그리고 (B)는 [가]와 [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다. 지문에서 보면 ㉠을 위한 방법은 공통점이 많은 대상들을 선택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③의 경우 [가]와 [나] 사이에 공통점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⑤의 경우는 유추의 결론이 옳을 가능성이 있지만 ②의 경우보다는 옳을 가능성이 적다.

3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보기>의 내용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유추 과정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유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되어 있다. 맨 처음에 할 것은 '알고자 하는 특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에서 말한 '화성과 태양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은 '비교'를 통해 공통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태양과 지구', '태양과 화성' 사이의 거리가 비슷하다고 했다. 이는 공통점을 파악한 것이다. 이 공통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 과정이 '화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확인함'이다. 맨 처음에 하는 '알고자 하는 특성의 확정'은 <보기>의 경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까?'이다.

[오답풀이] ④ 지문의 셋째 단락을 보면 유추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알고자 하는 대상에 알려진 특성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보기>의 경우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④는 올바른 이해라 할 수 있다.

[34~36] (과학) 캠벨 외, 「생명 과학」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개체군들이 같은 지역에 서식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과 이에 대한 개체군의 대응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개체군의 경우 같은 지리적 영역을 차지하며 서식할 때 필연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종은 다른 종에 밀려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경쟁을 피하며 개체군이 공존하기 위해 취한 방식으로는 분서와 형질 치환이 있다. 분서의 경우 서식지를 나누거나 활동 시간을 나누는 방식 등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나누는 것이고, 형질 치환은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종이 서로 다른 자원을 취하도록 형태적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생태학자 가우스의 실험 결과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 통념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생태학자 가우스의 실험 사례, 동소성 개체군들과 이소성 개체군들의 체형 구조 차이의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생태적 지위나 경쟁적 배제, 분서, 형질 치환 등의 용어의 개념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둘째 단락에서 '그럼 동소성 개체군의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질문을 던져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첫째 단락에서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종들이 분포하는 방식을 동소성 개체군과 이소성 개체군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서의 방식을 장소를 나누는 방식과 활동 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을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나)의 A와 B는 같은 서식지에 함께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소성 개체군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A와 B는 서로 지역적으로 격리된 채 서식하고 있으므로 경쟁적 배제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② (나)의 A와 B는 같은 서식지에서 서로 섞여 살고 있는 상태이므로 동소성 개체군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생길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개체군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제한된 자원을 서로 나누기 위해 형질 치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다)의 경우 A와 B가 같은 서식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소성 개체군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로 서식지를 나누어 살고 있다. 따라서 서식지 분리를 통해 경쟁적 배제를 피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특별해설]

▶ 중학교 학습 요소

중학교에서 학생들은 설명하는 글에 사용된 구조를 이해하며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학습을 해 왔다.

▶ 고등학교 평가 문제의 특징

고등학교에서는 읽기 자료를 제시한 후, 단순하게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추론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이 문제는 자료에서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하고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 학습 전략

과학 지문의 경우 과학적 원리와 관련된 용어가 제시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원리의 적용과 관련된 문항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 분야의 글은 제시된 원리나 이론이 구현되는 과정을 실제의 실험이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보여 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는 그림이나 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에 제시된 원리를 문항의 시각 자료와 대비해 가면서 꼼꼼히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 즉 생태 지도 속에서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36. [출제의도] 정보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분서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나누는 것이고, 형질치환은 제한된 자원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체형의 구조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자원을 나누는 것이므로, 분서와 형질치환은 모두 자원의 분할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37~39] (기술) 김재창 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CCS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는 ‘연소 후 포집 기술’, ‘연소 전 포집 기술’,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지문은 이 세 가지 기술 중 기존 이산화탄소 발생원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연소 후 포집 기술’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소 후 포집 기술’은 ‘흡수, 재생, 압축, 수송, 저장’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공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CCS 기술의 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는 글로, CCS 기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CCS 기술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안전한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CCS 기술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CCS 기술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밝히면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은 CCS 기술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재생탑에서는 고온의 열처리가 이루어진다. 열처리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열에너지를 받으면 흡수제의 기공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흡수제가 재생되어 흡수탑 상단으로 이동한다. 이때 흡수제가 이산화탄소의 열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열처리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열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배기가스에는 물, 질소,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흡수제는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만을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과 질소는 골똥을 통해 그대로 배출된다. ② 흡수탑에서는 흡수제에 유입된 이산화탄소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달라붙게 된다. ③ 흡수 포화점에 다다른 흡수제는 재생탑 상단으로 이동되어 재생 공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공정도에 나타난 연결관은 흡수 포화점에 다다른 흡수제가 재생탑으로 이동하는 통로이다. ⑤ 압축기는 포집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이송에 편리하도록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

3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흡수탑에서 흡수 포화점에 다다른 흡수제는 재생탑으

로 이동되어 재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산화탄소의 포집은 이 흡수와 재생 공정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데 재생 공정에서는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흡수 포화점이 향상된 흡수제를 개발하게 되면 흡수제가 이전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게 되어 재생탑으로 이동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재생탑에서 흡수탑으로 흡수제가 이동하는 횟수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흡수 포화점이 향상된 흡수제가 개발되면 흡수와 재생 공정의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생탑에서 이루어지는 열처리에 드는 에너지 소모도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흡수 포화점이 향상된 흡수제가 개발되더라도 흡수제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핵심인 흡수와 재생 공정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③ 흡수 포화점은 흡수제의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을 의미하므로 흡수제의 재생물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이산화탄소의 포집은 주로 흡수탑에서 이루어지므로 흡수 포화점이 향상된 흡수제가 개발되더라도 재생 공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⑤ 흡수제는 흡수 공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흡수제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로 옮기는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40~42] (사회)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수요 탄력성이다.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가격의 변화 비율로 나눈 값으로, 그 값에 따라 상품의 수요를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으로 나눈다. 수요 탄력성을 통해 소비자의 지출액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수요가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지출액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지출액이 증가하지만,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지출액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지출액이 감소한다. 이러한 수요 탄력성은 개별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다)에서는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에 따라 상품의 수요가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의 중심 내용은 ‘수요 탄력성에 따른 상품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수요 탄력성이라며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가격의 변화 비율로 나누어 절댓값으로 표현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수요 탄력성에 따른 소비자의 지출액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수요 탄력성은 가계와 기업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한다.

지문에서는 수요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이 내리면 지출액이 감소하며, 수요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이 내리면 지출액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지출액을 줄이려면 수요 탄력성이 낮은 생필품의 가격은 낮추고, 수요 탄력성이 높은 사치품은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책’은 단위 탄력적이며, ‘라면’과 ‘국수’의 탄력성은 모두 ‘2’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수와 라면의 수요 탄력성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책의 수요 탄력성은 ‘1’이므로 적절하다. ③, ④ 라면과 국수의 수요 탄력성은 ‘2’이므로

적절하다. ⑤ 수요가 탄력적인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지출액은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3~45] (예술) 임영주, 「단청」

한국 전통 예술 양식을 대표하는 단청을 소재로 하여 단청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단청은 건축물 보존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이후 여러 가지 색감과 문양을 더하여 장식성과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빛 넣기’, ‘보색대비’, ‘구획선 긋기’의 기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구획선 긋기는 색과 색 사이에 흰 분으로 선을 긋는 것을 말하며 이 기법을 활용하였을 때 문양의 무늬와 색조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법이다. 따라서 ⑤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구획선 긋기를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단청은 음양오행과 직결되는 오방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단청의 명도 변화는 백색 분이나 먹을 혼합하여 조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단청은 건물의 보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단청의 문양은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지문에서 단청은 건축물의 보존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감과 문양을 통해 장식성과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양의 경우 궁궐과 사찰에서 사용되는 문양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문양 모양에 따라 연꽃 문양은 극락왕생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빛 넣기를 통해 명도를 조절하여 시각적 율동성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보색대비를 통해 시각적 장식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①의 ㉠과 ⑥의 관계는 보색대비가 아니라 빨강 계통의 빛 넣기에 해당하므로 색의 대비를 통하여 문양의 색조를 두드러지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명도가 낮은 빛은 물러나고 명도가 높은 빛은 다가서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③ 빛 넣기를 통한 명도 차이는 시각적 율동성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④ 붉은색과 푸른색은 서로 대비되는 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색대비는 더운 색 계열과 차가운 색 계열을 서로 엮바꾼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청색을 채색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연꽃 문양의 상징적 의미는 극락왕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한다.

단청 기법 중 보색대비는 더운 색과 차가운 색의 층을 조성하여 색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기법으로 이러한 색의 조화를 통해서 시각적 장식 효과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법이다. 따라서 ①의 시각적 장식 효과를 얻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③, ④, ⑤는 보색대비와 관련이 없는 설명으로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